

경제자료

북한관련 책을 통해서 본 일본 여론

본 자료는 일본에서 2000년 이후 출판된 북한관련 서적을 통해서 일본 여론의 동향을 살펴본 것이다. 원문은 북한연구센터(朝鮮民主主義研究センター)를 운영하고 있는 小池和彦 RENK 東京회원이 작성한 것으로 “북한관련 책을 통해서 본 일본 여론”(원제: 北朝鮮本から見た日本の言論状況)이라는 제하의 글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1999년부터 북한의 기아와 인권침해 실태를 알게 되고 납치문제로 인해 일본의 우익이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배외주의가 심각해지자 북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북한 논의에서 객관적인 틀을 제시하고자 하기 위해 북한연구센터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였고, 북한 관련 신간 서적을 소개·평가하고 북한동향을 업데이트하게 되었다고 한다.

본 자료에서는 이 글에서 2000년 이후 북한관련 서적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일본 여론의 동향을 살펴 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관련 부분을 번역·정리하였다. 본 자료는 2000년 이후 일본의 북한관련 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소개한다.

원문은 <http://www.asiavoices.net/nkorea/20031220a.html>에서 볼 수 있다.

< 작성 : 김은영 연구원 >
key@kdi.re.kr

1. 납치 문제 분야

납치문제에 관해서 출판된 책으로는 2000년에 2권, 2002년에 7권, 2003년에는 4권이 있다. 이 책들을 살펴보면 2002년 북일정상회담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일정상회담 이전에 쓰여진 것은 주로 저널리스트와 납치 피해자에 의한 것이었다. 石高健次の 『김정일의 납치지령(金正日の拉致指令)』, 『북한, 이래도 시치미를 떼는가(これでもシラを切るのか北朝鮮)』, 高世仁의 『납치(拉致)』, 高澤皓司의 『숙명(宿命)』 등이 있다. 石高健次는 横田메구미의 사례를 처음으로 보도한 사람이고, 高世仁은 이 사례에서 安明進의 증언을 이끌어 낸 사람이다. 납치자의 가족들이 출판한 책도 있는데, 横田紀江의 『메구미, 어머니가 반드시 도와줄게(めぐみ,お母さんがきっと助けてあげる)』와 寺越友枝의 『생이별한 37년-북한에 있는 아들, 품으로 돌아와라(生き別れて37年-北朝鮮にいる息子よ。わが胸に歸れ)』가 있다.

북일정상회담 후 모든 매스컴이 이 문제를 보도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개인 자격으로 출판된 책은 거의 없고 『북한 납치피해자 구출 모임(救う會)』의 佐藤勝巳, 西岡力, 荒木和博가 출판한 책이 있다. 荒木和博의 『납치구출운동 2,000일(拉致救出運動の2000日)』은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가족들이 쓴 것으로는 蓮池透의 『탈환(탈환)』, 『가족회(家族會)』에서 공동으로 저술한 『가족(家族)』이 있다. 太田昌國의 『납치이론(拉致異論)』은 좌익이나 진보파가 납치문제를 과소평가하여 온 점과 북일정상회담 이후 보수파가 납치문제를 이용하여 국가주의를 부채질하고있는 것을 모두 비판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이 분야에서 저널리스트들이 저술한 책이 없다는 점이다. 단지 몇 명의 저널리스트가 쓴 글을 모은 무크 형식의 책이 몇 권 있을 뿐이다. 납치문제와 관련한 보도는 많이 쓰여지고 있지만, 납치사건의 전모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 등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2. 난민 문제 분야

난민문제는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빈번히 보도되었지만 책은 많지 않은 편이다. 2000년에 3권, 2001년이 1권, 2002년이 2권, 2003년이 1권이 출판되었다. 2001년과 2003년의 책은 의료원조를 위해 북한에 체류하고 있었던 노르베르트 플러첸(Norbert Vollertsen)이 쓴 것이고 2002년의 2권은 저널리스트인 石丸次郎가 쓴 것이다. 石丸次

郎의 『북한난민(北朝鮮難民)』은 난민문제의 입문서로 추천할 만 하다. 石丸次郎 이외에 전문가라고 말할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3. 탈북자 수기

탈북자의 수기는 북한책의 주류라고 말할 수 있다. 매년 5~6권이 출판되고 있다. 북한 민중의 생활상황이나 탈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이나 일본에 도착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탈북자 수기이다. 단, 탈북자는 북한을 버린 사람이므로 북한생활의 어려움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에 관하여 重村智計는 『북한 데이터 북(北朝鮮デ-タブック)』에서 “자기가 체험한 것만 쓰여져 있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수기이다. 수기의 내용에서 불필요하게 북한을 비판·비난하는 서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많은 수기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기준을 2003년에 출판된 책에 적용해 보면, 姜哲煥의 『평양의 수조(平壤の水槽)』와 金龍華의 『북한난민의 고백(ある北朝鮮難民の告白)』은 신뢰할 수 있는 책인 반면, 尹大日の 『북한 국가안전보위부(北朝鮮國家安全保衛部)』나 黃万有의 『북한인 먹는 수용소(北朝鮮人喰い收容所)』는 신뢰할 수 없다. 姜哲煥는 10년에 걸쳐 강제수용소를 체험했고, 金龍華는 탈북 후 14년동안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 방랑하다가 체포된 적이 있다.

尹大日は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라는 일본의 경찰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현재는 한국에서 탈북자동지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 책은 국가안전보위부가 어떤 기관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 와서 얻은 지식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重村智計의 기준에 비추보면 신뢰할 수 없지만, 필자는 탈북자의 수기로서가 아니라 북한의 국가기구 개설서로서 이 책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북한 관련 책은 많이 나와 있지만 북한의 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쓴 책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4. 북한의 경제와 사회 분야

북한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책은 거의 없다. 2000년에 『북한경제론(北朝鮮經濟論)』이나 2001년에 『북한의 농업(北朝鮮の農業)』이 출판되었으나 이 책은 한국 연구자가 쓴 책으로서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이다. 유감스럽게도 일본 연구자에 의한 책은 한 권도 없다. 2002년 『김정일개혁의 허실(金正日改革の虚實)』은 일본경제신문의 기자가 저술한 책으로 김정일 정권이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방정책

이나 남북공동 철도 연결사업 등이 보고되어 있다. 이 책은 신문기사를 종합한 것으로 분석적으로 쓰여진 책은 아니다.

宮塚利雄의 『부랑아와 미녀군단, 북한의 생활(浮浪兒と美女軍団 北朝鮮の暮らし)』은 북한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물건을 통해 북한사회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교과서, 내의, 저금통장, 비누 등이 사진과 함께 해설되어 있다. 북한사회를 물질적 증거에 따라 이해하려고 하는 책이다.

앤드류 나치오스(Andrew S. Natsios)의 『북한 기아의 진실(北朝鮮 飢餓の眞實)』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기아를 분석하고 있다. 나치오스는 World Vision이라는 미국 NGO의 부회장으로서 북한의 기아의 초기단계에 주목하여 그 심각성을 전 세계에 호소한 사람이다. 그 후 World Vision을 그만두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북중국경에서 난민들과 인터뷰하여 책을 썼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난민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 북한내에서 World Vision의 활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나치오스는 미국의 국제개발처(USAID) 처장이다. 북한 주민 300만명이 아사했다고 추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본격적인 연구는 이 정도 뿐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원조를 요청하면서도 기아 실태조사는 거부하는 자세를 취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기아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다. 이 책에는 부족한 정보로부터 조금씩 기아의 실태까지 추적해 나간 경위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식량원조에 관한 미국 내 논쟁도 소개되어 있다. 나치오스는 “굶주린 아이들은 정치와는 관계없다”고 말하는 레이건 대통령의 방침을 지지하는 반면, 원조와 외교를 연결시키려고 했던 클린턴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북한으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출판하는 경우가 적다는 점이다. 집회 등에서 인도적 지원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이 책으로 출판된 적은 없다. 노르베르트 플러첸의 『북한을 많이 알고 있는 의사(北朝鮮を知りすぎた醫者)』나 마이크 브라쓰케(Mike Bratzke)의 『북한 낙원의 잔해(北朝鮮樂園の殘骸)』라는 서적처럼 원조활동을 그만 둔 저자의 책만이 출판되어 있을 뿐이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책으로 접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마도 책을 출판하게 되면 이러한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출판되지 않는 것 같다.

5. 외교 분야

외교에 관한 책은 매년 많이 출판되고 있다. 좌익·진보파의 북한 관련 서적이 이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2003년에 출판된 책으로는 『북일국교교섭, 어떻게 될 것인가

(どうなる日朝國交交渉), 『북일교섭 과제와 전망(日朝交渉課題と展望)』, 『북일관계의 극복(日朝關係の克服)』, 『동북아시아시대로의 제언(東北アジア時代への提言)』, 『북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北朝鮮とどう向きあうか)』 등이 있다. 외교 분야는 국가의 권력 관계가 중심이므로 기아나 강제수용소, 납치 등을 문제삼을 필요가 없어서 책이 다수 출판되는 것 같다.

『미국과 북한(アメリカと北朝鮮)』은 대단히 흥미로운 논문집이다. 이 책은 외교의 분야에서 권위있는 잡지인 『Foreign Affairs』에 실린 논문을 모은 것으로 미국의 강경파에서 온건파까지 다양한 주장을 보여준다. 필자가 관심있게 본 것은 빅토르 차(Victor Cha)의 논문이다. 그는 부시정권의 대북정책을 ‘강경한 포용정책’이라고 특징지어 부르고 있다. 강경한 포용정책은 무력행사를 제1의 수단으로 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클린턴 정권의 포용정책이나 한국의 햇볕정책과 같아 보이지만 북한의 체제붕괴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정책이라는 것이다.

케네스 키노네스(Kenneth Quinones)의 『북한 미국 국무성담당관의 교섭비록(米國務省擔當官の交渉秘録)』, 『북한II 핵의 비밀도시 영변을 가다(北朝鮮II 核の秘密都市寧辺を往く)』는 우선적으로 추천할 만한 책이다. 그는 1994년 제네바 북미합의 당시에 미국 국무성의 북한 담당관으로서 활동하였고 그 후 제네바 합의를 이행과정에도 종사했다. 1권에서는 북미합의까지의 북미교섭을 다루었고, 2권에서는 합의의 이행작업을 회상하였다. 이 책에서는 북한의 관료와의 빠듯한 협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북한의 관료기구를 엿볼 수 있으면서 미국 외교의 실태도를 볼 수 있다.

6. 군사 분야

군사분야는 난민문제와 같이 책이 적은 분야로 매년 2~3권 정도 출판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문제의 핵심은 핵문제이지만 북한의 핵개발에 관해서 쓰여진 책은 西岡力の 『테러 국가 북한에 속지 말라(テロ國家・北朝鮮に騙されるな)』와 神浦元彰의 『북한소멸(北朝鮮消滅)』 정도 밖에 없다. 西岡力은 북한이 이미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입장인 반면 神浦元彰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라크 다음은 북한인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2003년에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상정한 책도 있다. 이러한 책은 부시정권의 대테러전쟁에 편승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유사(朝鮮有事)』와 『북한 공습 시나리오(北朝鮮空爆へのシナリオ)』가 있다. 책제목은 선정적이지만 실제로 분석은 냉철한 편이다. 이 책들은 대포동 미사일 위협을 과장하거나 미국에 의한 군사공격을 주장하는 내용은 아니다. 아마 출판

사에서는 관측을 위해 눈에 띄는 제목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7. 일본 여론 동향

현재 일본 여론의 지배적인 경향이 “북한 때리기”인가? 2003년 초에 和田春樹와 高崎宗司 편저로 『북한관련 서적,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北朝鮮本をどう読むか)』라는 책이 출판되었다. 이 책은 북한에 대한 일본의 부정적인 여론인 네거티브 캠페인에 대항하는 책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佐藤勝巳, 萩原遼, 노르베르트 플러첸, 李英和를 비판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사건에 따른 비판이 많이 담겨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다.

오히려 이 책에서는 비판하지 않았으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하는 책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西岡力の 『김정일이 준비한 대일 대모략 납치의 진실(金正日が仕掛けた對日大謀略拉致の眞實)』에서는 납치피해자 중 8명이 사망하였다는 김정일의 발언에 대해 납치피해자가 공작활동과 관련되어 있어서 밝힐 수 없으므로 죽었다고 발표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이와 관련해서 사망의 증거가 없으므로 생사불명 상태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김정일의 발표가 거짓이라고 단정짓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萩原遼의 『납치와 핵과 아사의 나라, 북한(拉致と核と餓死の國 北朝鮮)』은 1990년대 아사는 김정일에 의한 계획적 살인인 것은 아닐까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적대계층을 아사시켜 반란의 소지를 없애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계획적인 살인이라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아에 대해 김정일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의도적으로 죽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북한에 대한 일본의 여론은 네거티브 캠페인, 포지티브 캠페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납치문제 보도와 탈북자 수기 등은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인권과 인도적 관점에서 납치피해자 구출과 탈북자 지원을 위한 호소는 오히려 네거티브 캠페인이 아니라 포지티브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 배외주의가 강해지고 있으나 이를 둘러싼 논의를 단면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표 1〉 2003년 북한관련 서적

분야	지자	제목	출판사	
인권	납치	人權と報道・連絡會編	檢證・『拉致歸國者』マスコミ報道 (검증 납치귀국자 매스컴 보도)	社會評論社
		朴春仙	北の闇から來た男 (북한의 어둠에서 온 남자)	ザ・マサダ
		蓮池透	奪還(탈환)	新潮社
		太田昌國	『拉致』異論(납치이론)	太田出版
		北朝鮮による拉致被害者家族連絡會	家族(가족)	光文社
	귀국사업	張明秀	謀略・日本赤十字 北朝鮮『歸國事業』の深層 (모략·일본적십자 북한 귀국사업의 심층조사)	五月書房
	난민	ノルベルト・フォラツェン	北朝鮮を知りすぎた醫者 脱北難民支援記 (북한을 많이 알고 있는 의사 탈북난민지원기)	草思社
	탈북자 수기	李英國	私は金正日の極私警護官だった (나는 김정일의 경호원이었다)	ブックマン社
		黃万有	北朝鮮人喰い收容所 (북한인 먹는 수용소)	徳間書店
金龍華		ある北朝鮮難民の告白 (북한난민의 고백)	窓社	
尹大日		北朝鮮國家安全保衛部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文藝春秋	
姜哲煥		平壤の水槽 (평양의 수조)	ポプラ社	
尹大日		『北』の公安警察 (북한의 공안경찰)	講談社	
북한 경제·사회	宮塚利雄	浮浪兒と美女軍団 北朝鮮の暮らし (부랑아와 미녀 군단, 북한의 생활)	小學館文庫	
	マイク・ブラツケ	北朝鮮『樂園』の殘骸 (북한 낙원의 잔해)	草思社	
	李英和	極秘潛入(극비잠입)	小學館	

외교	ニコラス・エバスタット	北朝鮮最期の日 (북한 최후의 날)	恒文社
	日朝國交促進國民協會編	どうなる日朝國交交渉 (북일국교교섭 어떻게 될 것인가)	彩流社
	フォーリン・フェアズ・ ジャパン編・監譯	アメリカと北朝鮮 (미국과 북한)	朝日新聞社
	島田洋一	アメリカ・北朝鮮抗爭史 (미국・북한 항쟁사)	文春新書
	姜尙中・水野直樹・李鍾元 編	日朝交渉課題と展望 (북일교섭의 과제와 전망)	岩波書店
	ケネス・キノネス	北朝鮮II 核の秘密都市寧 辺を往く (북한II 핵의 비밀도시 영변을 가다)	中央公論新社
	姜尙中	日朝關係の克服 (북일관계 극복)	集英社新書
	野村旗守編	北朝鮮利權の真相 (북한이권의 진상)	寶島社
	武者小路公秀監修／徐勝・ 松野周治・夏剛 編	東北アジア時代への提言 (동북아 시대로의 제언)	平凡社
	岡本厚	北朝鮮とどう向きあうか (북한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	かもがわ出版
	平間洋一・杉田米行編	北朝鮮をめぐる北東アジアの國際 關係と日本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의 국제관계와 일본)	明石書店
	青木直人	北朝鮮處分(북한 처분)	祥伝社
神浦元彰	北朝鮮消滅(북한 소멸)	イ-スト・プレス	
군사	ベ・ヨンホン 編	朝鮮有事!(북한유사)	バジリコ 株式會社
	白善ヨッフ	朝鮮半島 對話の限界 (한반도 대화의 한계)	草思社
	潮匡人	北朝鮮の脅威を見ない人たち (북한의 위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小學館文庫
	半田滋	自衛隊vs.北朝鮮 (자위대 對 북한)	新潮新書
	黒井文太郎 編	北朝鮮<空爆>へのシナリオ (북한 공습 시나리오)	寶島社
	재일사회	金昌烈	朝鮮總聯の大罪 (조총련의 대죄)
李策		激震! 朝鮮總連の内幕 (격진! 조총련의 내막)	小學館文庫
辛淑玉		鬼哭啾啾(귀곡)	解放出版社

일반	保田剛	北朝鮮憲法を読む (북한 헌법을 읽는다)	リイド社
	重村智計監修	北朝鮮ってどんな國? (북한은 어떤 나라?)	PHP
	漫畫でわかった北朝鮮問題 研究會 編	マンガでわかった北朝鮮問題 (만화로 보는 북한문제)	マイウェイ出版
	關川夏央	『北朝鮮』とは何だったのか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	KKベストセラーズ
	-	笑ってられない『北朝鮮』畫報 (웃을 수 없는 북한 화보)	寶島社
	李友情	マンガ金正日入門 (만화 김정일 입문)	飛鳥新社
	藤本健二	金正日の料理人 (김정일의 요리사)	扶桑社
	辺眞一	『金正日』の眞實 (김정일의 진실)	小學館文庫
		北朝鮮の歴史教科書 (북한 역사교과서)	徳間書店
	萩原遼	拉致と核と餓死の國 北朝鮮 (납치와 핵과 아사의 나라 북한)	文春新書
	鄭銀淑	日本が知らない北朝鮮の素顔 (일본이 모르는 북한의 얼굴)	ふたばらいふ双書
	和田春樹・高崎宗司 編著	北朝鮮本をどう讀むか (북한 관련 서적,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明石書店

〈표 2〉 2002년 북한관련 서적

분야	지자	제목	출판사	
인권	납치	李在根	北朝鮮に拉致された男 (북한에 납치된 남자)	河出書房新社
		八尾恵	謝罪します(사죄합니다)	文藝春秋
		高世仁	拉致(납치)	講談社
		西岡力	拉致家族との6年戦争 (납치가족과의 6년전쟁)	扶桑社
		荒木和博編著	拉致救出運動の2,000日 (납치구출운동 2,000일)	草思社
		佐藤勝巳編著	拉致家族『金正日との戦い』全軌跡 (납치가족의 김정일과의 투쟁, 전 궤적)	小學館文庫
		西岡力	金正日が仕掛けた『對日大謀略』拉致の 眞實 (김정일이 준비한 대일 대모략 납치의 진실)	徳間書店
	난민	石丸次郎	北朝鮮難民(북한난민)	講談社現代 新書
		石丸次郎	北のサラムたち(북한의 사람들)	インフォバン
	탈북자 수기	チャン・キホン	北朝鮮生活(북한생활)	イ-スト・ プレス
金素妍		金日成長壽研究所の秘密 (김일성 장수연구소의 비밀)	文春文庫	
韓元彩		脱北者(탈북자)	晩聲社	
青山健熙		北朝鮮という悪魔(북한이라는 악마)	光文社	
金龍華		北朝鮮から逃げ抜いた私 (북한으로부터 도망친 나)	毎日新聞社	
青山健熙		北朝鮮 悪魔の正体(북한 악마의 정체)	光文社	
キム・グアンチョル家・ 文國韓		ハンミちゃん一家の手記(한미의 가족 수기)	文藝春秋	

북한 경제·사회	伊集院敦	金正日『改革』の虚實 (김정일 개혁의 허실)	日本經濟 新聞社
	アンドリュウ・ナチオス	北朝鮮 飢餓の眞實 (북한 기아의 진실)	扶桑社
외교	佐藤勝巳	日本外交はなぜ朝鮮半島に弱いのか (일본외교는 왜 한반도에 약한가)	草思社
	重村智計	金正日とビンラディン (김정일과 빈라덴)	小學館文庫
	崔源起·鄭昌鉉	朝鮮半島のいちばん長い日 (한반도의 가장 긴 하루)	東洋經濟 新報社
	和田春樹	朝鮮有事を望むのか (북한사태를 바라는가)	彩流社
	チャック辺・ダウンス	北朝鮮の交渉戦略 (북한의 교섭전략)	日新報道
군사	西岡力	テロ國家・北朝鮮に騙されるな (테러 국가 북한에게 속지마라)	P H P
재일사회	野村旗守	北朝鮮 送金疑惑(북한 송금의혹)	文春文庫
	韓光熙	わが朝鮮總連の罪と罰 (우리 조총련의 죄와 벌)	文藝春秋
일반	恵谷治·神浦元彰·高世 仁·野村旗守·宮塚利雄	北朝鮮 對日潛入工作 (북한 대일잠입공작)	寶島社
	別冊寶島編集部編	北朝鮮の“謎”を解く (북한의 수수께끼를 푼다)	寶島社文庫
	朝鮮日報『月刊朝鮮』編著	新版 金正日,したたかで危険な實像 (신판 김정일, 만만치 않고 위험한 실상)	講談社+α文 庫
	重村智計	最新・北朝鮮デ-タブック (최신 북한 데이터 북)	講談社現代 新書
	佐藤勝巳	北朝鮮の『今』がわかる本 (북한의 현재를 알 수 있는 책)	三笠書房
	森順子	いつまでも田宮高磨とともに (언제까지나 田宮高磨와 함께)	鹿砦社
	金東起	ある北朝鮮政治工作員の告白 (어느 북한 정치공작원의 고백)	河出書房新社
	辺眞一	金正日『延命工作』全情報 (김정일 연명공작 전정보)	小學館文庫
	山本將文	北朝鮮 激撮! 拉致と飢餓の眞相にせまる (북한 납치와 기아의 진상에 다가서다)	扶桑社

〈표 3〉 2001년 북한관련 서적

분야		저자	제목	출판사
인권	난민	ノルベルトフォラツ エン	北朝鮮を知りすぎた醫者 國境からの報告 (북한을 많이 알고 있는 의사, 국경으로부터의 보고)	草思社
탈북자 수기		高青松	金正日の秘密兵器工場 (김정일의 비밀무기공장)	ビジネス社
		チャン・キルスとそ の家族	涙で描いた祖國 (눈물로 그린 조국)	風媒社
		李韓永	金正日が愛した女たち (김정일이 사랑한 여자들)	徳間書店
		安哲・朴東明	北朝鮮飢餓ルポ (북한 기아 르포)	小學館文庫
		成へラン	北朝鮮はるかなり- 金正日官邸で暮らした20年 (북한 김정일관저에서 생활한 20년)	上・下,文藝春秋
		趙甲濟 編	北朝鮮 地獄からのレポート (북한 지옥으로부터의 레포트)	河出書房新社
북한 경제·사회		金成勳・金致泳	北朝鮮の農業 (북한의 농업)	農林統計協會
		ノルベルト・フォラ ツェン	北朝鮮を知りすぎた醫者 (북한을 많이 알고 있는 의사)	草思社
외교		石坂浩一, 田中宏, 山田昭次ほか	日朝條約への市民提言 (북일조약을 위한 시민 제언)	明石書店
		小林英夫編	北朝鮮と東北アジアの國際新 秩序 (북한과 동북아의 신국제질서)	學文社
군사		松井茂	謎の軍事大國 北朝鮮 (수수께끼의 군사대국 북한)	新潮OH!文庫
		A・V・トルクノフ	朝鮮戰爭の謎と眞實 (한국전쟁의 수수께끼와 진실)	草思社
		武貞秀士	恐るべき戰略家・金正日 (무서운 전략가 김정일)	PHP研究所
일반		鄭敬謨	南北統一の夜明け (남북통일의 새벽)	技術と人間
		關川夏央・恵谷治・ NK會編	北朝鮮の延命戰爭 (북한의 연명 전쟁)	文春文庫

〈표 4〉 2000년 북한관련 서적

분야	저자	제목	출판사	
인권	남치	生き別れて37年 北朝鮮にいる息子よ わが胸に歸れ (생이별한 37년- 북한에 있는 아들, 품으로 돌아와라)	徳間書店	
		高澤皓司	宿命(숙명)	新潮文庫
	난민	野田正彰	國家に病む人びと(국가에 병든 사람들)	中央公論新社
		新井貴	越境 北朝鮮から賣られてきた花嫁 (북한에서 팔려온 신부)	リム出版新社
		金贊汀	慟哭の豆満江 中・朝國境に北朝鮮飢民を訪ねて (두만강, 조중국경에서 북한난민을 만나)	新幹社
탈북자 수기	宮崎俊輔	北朝鮮大脱出 地獄からの生還 (북한 대탈출, 지옥으로부터의 탈출)	新潮OH!文庫	
	高英煥	ソウル暮らし 平壤暮らし (서울생활, 평양생활)	徳間文庫	
	李順玉	北朝鮮 泣いている女たち (북한, 울고 있는 여자들)	ワニ文庫	
	安明哲	北朝鮮 絶望收容所 (북한, 절망의 수용소)	ワニ文庫	
	張仁淑	凍れる河を超えて (언 강을 넘어)	講談社	
북한 경제·사회	梁文秀	北朝鮮經濟論(북한경제론)	信山社	

외교	關川夏央・恵谷治・NK會編	金正日の哄笑——南北は本当に和解したのか (김정일의 미소- 남북한은 정말로 화해한 것인가)	光文社
	中西輝政編著	北朝鮮と國交を結んではいけない (북한과 국교를 맺어서는 안된다)	小學館文庫
	重村智計	北朝鮮の外交戦略 (북한의 외교전략)	講談社現代新書
	吉田康彦・進藤榮一編	動き出した朝鮮半島 (움직이기 시작한 한반도)	日本評論社
	ケネス・キノネス	北朝鮮 米國務省擔當官の交渉秘録 (북한, 미국 국무성담당관의 교섭비록)	中央公論新社
	全哲男	『脅威の國』との國交交渉 (위협국가와의 국교교섭)	綠風出版
	趙甲濟	金正日と金大中 野心と野望 (김정일과 김대중, 야심과 야망)	講談社+α新書
	佐藤勝巳	朝鮮情勢を読む (북한정세를 읽는다)	晚聲社
	重村智計	南北統一(남북통일)	小學館文庫
	李泳禧	朝鮮半島の新ミレニアム (한반도의 신밀레니엄)	社會評論社
	西岡力	金正日と金大中(김정일과 김대중)	PHP研究所
	北川廣和	北朝鮮バッシング (북한 때리기)	綠風出版
군사	塚本勝一	北朝鮮・軍と政治 (북한의 군과 정치)	原書房
	ジン・ネット北朝鮮問題取材班	追跡!! 北朝鮮工作船 (추적, 북한공작선)	小學館文庫
재일사회	李進熙	海峽 ある在日史學者の半生 (어느 재일사학자의 반생)	靑丘文化社

일반	橋爪大三	こんなに困った北朝鮮 (아주 어려운 북한)	メタログ
	佐田勝弘	誰も書けなかった朝鮮半島5つの謎 (누구도 쓸 수 없었던 한반도의 수수께끼 5개)	徳間書店
	佐藤勝巳・長谷川慶太郎	朝鮮統一の戦慄 (한반도 통일의 전율)	光文社
	韓國・中央日報社編	金正日 衝撃の實像 (김정일 충격의 실상)	徳間文庫
	金正日	人間の証し (인간의 증거)	同朋舎
	朝鮮日報	朝鮮日報熱筆コラム『北朝鮮の常識100』 (조선일보칼럼, 북한 상식 100)	小學館文庫
	鈴木邦男・井上周八・重村智計	日本國民のための北朝鮮原論 (일본국민을 위한 북한원론)	デジタルハリウッド出版局
	恵谷治	金正日大圖鑑(김정일 대도감)	小學館
	李美淑	金正日 最後の賭け(김정일 최후의 내기)	講談社
	萩原遼	朝鮮と私 私の旅ノート (북한과 나, 나의 여행노트)	文春文庫